

불신자의 심판

신학박사 조 덕운

[요한계시록 20:12-15]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13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14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사람들은 보통 지옥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싫어 합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보통 사람들이 교도소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범죄자를 벌주는 목적으로 교도소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주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보다 영원한 처벌의 장소, 즉 지옥에 관하여 더 자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겁주기 보다는 지옥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나라, 즉 천국을 생각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두움을 피하고자 하면 빛을 찾을 것이며,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추구할 것입니다.

계시록 20 장의 위의 구절들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소위 '흰 보좌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 즉 하나님의 생명책 (Book of Life)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 받은 신자들은 이미 부활하여 이 흰보좌 심판석에 피고로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즉 피고로서 부활되어 서게 될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만 그들의 인생 행적이 모두 기록된 '책들'의 기록에 따라 심판 받아 불호수 (Lake of Fire)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지옥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 이전에 모든 불신자, 행악자들은 임시적인 지옥 (Hades)에 머무르게 됩니다. 위의 13 절에서 우리는 죽음과 지옥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이 흰보좌 심판석 앞에 서도록 내어주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ades 지옥은 그 심판 때까지 존재할 한시적 처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나서 모든 불신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불 호수에서 영원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심판은 무의미하거나 없다고 자신의 불신을 정당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서 모두 부활할 것이며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이 계시록의 심판석 묘사는 이 사실을 좀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27-28]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28-29]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 예수님께서 두번째 오시는 날에는 그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죄와 상관 없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천년 왕국이 다할 때까지 지옥에서 고통 받으면서 대기하다가 모두 부활하여 피고로서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불호수의 처벌이 어떤 처벌인지 상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자가 임시적 지옥에서 겪는 고통스런 처벌을 볼 때에 불 호수의 처벌이 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6:19-31].

신자들도 물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즉 능력과 기회와 자산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키웠는가에 따라 우리의 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되고 하늘 왕국에 거하게 될 것이며, 흰보좌 심판석에 피고로 설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어 낱낱히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의 종류와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Just God)’ 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드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그 어깨에 매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 못박혀 매달리셨을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도 피를 흘리면서 죽게 내버려 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밤낮을 지옥에 버려두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흰보좌 심판석에서 내리실 심판은 오직 정의로울 것이며, 그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는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26-27]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였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흰보좌 심판석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위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제약과 고통을 견디시고, 부정당한 심판을 받으셨고, 죄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의 처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의 인생 기록은 끝이 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기회는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여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셨던 재판장 예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가 그 이유를 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불신을 정당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와 자신의 불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권면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How to send financial support for Douglas Cho Ministry:

한국: 신한은행 82234498000 [예금주: 조덕운]

Using PayPal, send your contribution to dwcho4771@gmail.com